부처님 성불은 시공초월 본래 성불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⑰ 석가모니와 제바달다

이때 부처님이 여러 보살과 인간 그리고 천상의 사부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 동안 법화의 가르침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느니라. 여러 겁 동안 항상 국왕이 되어 원을 일으켜 위없는 보리 구하는 데 마음이 물러남이 없었느니라. 여섯 가지 바라밀을 완성하고자 한 까닭에 보시를 할 적에 코끼리, 말, 칠보, 도성, 처자, 하인은 말할 것 없고 머리, 눈, 골수, 몸, 살, 손발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었지만, 법을 위해 왕위를 버려 태자에게 맡기고 북을 쳐 선언하되 사방에 법 구하되, '누구든지 능히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해주는 자가 있으면 내가 마땅히 죽을 때까지 섬기어 시중을 들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입니다. 만약 나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설해드리오리이다' 고 하였다.

왕이 선인의 이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여, 곧 선인 따라가 구하는 것을 공급하며 시중을 드는데 과일을 따고 물을 길으며 땔나무를 하며 음식을 만들며 심지어 몸으로 평상이 되기도 했지만 몸도 마음도 고달픔을 몰랐다. 그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천년이 지나도록 하였으니, 법을 위하여 부지런히 시중들어 모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다시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왕은 나요,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였느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아 육바라밀과 자(慈), 비(悲), 희(喜), 사(捨)와 삼십이상과 팔십종호와 붉은 금빛의 색과 열 가지 힘 네 가지 두려움 없는 것과 네 가지 포섭하는 법과 열여덟 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힘, 신통력과 도력을 갖춰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었느니라."

〈법화경〉 전체 28품 가운데 제12 '제바달다품' 은 구마라집이 번역할 당시에는 없었던 품으로 천태지의 생존 무렵에 추가된 품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제바달다는 교단에 반역을 꾀했던 인물로 부처님을 시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달(調達)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그는 곡반왕(斛飯王)의 아들로 아난 존자의 형이었는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오역죄(五逆罪) 중 삼역죄(三逆罪)를 범했다. 교단을 분열시키는 파화합승(破和合僧)의 죄를 범했으며,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려 석가모니의 발가락에 피를 내게 한 출불신형(出佛身血)의 죄와 석가모니를 해치지 말라고 충고하는 연화색 비구니를 죽인 살아라한(殺阿羅漢) 죄를 범했다. 그리하여 제바달다는 불교 역사에 악인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법화경〉에 와서는 석가모니의 전신(前身)이 왕으로 있을 때 선인(仙人)으로 있으면서 부처님께 〈법화경〉을 설해준 스승이었다는 것이다. 선인이었던 제바달다를 국왕이었던 석가모니 전신이 천년이 지나도록 온갖 시중을 들며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하면서 선지식으로 섬겨 등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제도했다고 한다. 이 제바달다에게도 부처님은 수기(授記)를 준다.

〈법화경〉의 법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이야기가 설해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일들을 그 의미를 빼앗아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알게 하는 말들이 나온다.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여래수량품' 에 부처님의 '구원성불(久遠成佛)' 을 설하는 대목에 부처님이 천상, 인간, 아수라 삼도(三途)의 중생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 "지금의 석가모니불이 석가족의 궁전에서 가만히 나와 가야성에서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 아뉴다라삼먁삼보리 얻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내가 성불한 지는 실로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되었느니라."

언제 어디서라고 역사적 사실로 명기된 부처님의 성불이 진짜 성불이 아니고 부처님의 성불은 시간과 장소를 말할 수 없는 백천만 억 나유타겁 전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성불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시공을 초월한 본래 성불이라는 것이다. 이는 불성(佛性), 혹은 법성(法性) 자체가 본래 시작이 없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지계가 바라밀, 바라밀이 지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⑰ 지계바라밀

대승불교의 이상상(理想像)인 보살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보살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승 보살은 발심(發心), 즉 최고의 바른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어야 하며, 자신의 발심을 모든 중생에게 확대한 서원(誓願)을 세워야 한다. 대부분의 초기 대승경전은 발심을 포함한 서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승 보살의 서원은 발심을 견고하게 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물러서지 않게 한다.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한두 가지 바람은 있으며, 대부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바랄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넘어서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복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이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에게 관심조차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의 행복을 바랄 수 있겠는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타심이 있어야만 이타적인 서원을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서원은 그 자체로 선업(善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십선업도(十善業道), 즉 십선계(十善戒)를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타적인 서원일지라도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선한 의도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승불교도들은 불전문학에서 본생(本生) 보살의 실천덕목이었던 바라밀에 주목하게 된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 파라미타(pāramitā)를 음사한 것으로, 그 의미는 '최상의 상태로서 완성' 이다. 한편 구마라집은 이를 도피안, 즉 '깨달음의 경지인 피안에 도달하는 것' 으로 한역했다. 일부 학자들은 구마라집의 한역이 문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인들은 도피안을 의미상 적절한 해석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통용된다.

또 대승불교도들은 보살의 실천덕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초기 불교경전에 산발적으로 설해졌던 여러 수행덕목을 눈여겨보게 된다. 이로 인해 초기 대승경전에는 여러 유형의 바라밀이 설해지게 되었으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여섯 가지 바라밀이다. 여섯 가지 수행덕목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이다. 여기에 바라밀을 덧붙이면 육바라밀(六波羅蜜)이 되며, 이것은 각각의 수행덕목을 통한 완성으로서의 과정과 그 자체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계바라밀의 경우에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지계를 통한 완성, 지계에 의한 완성이 지계바라밀의 뜻이며, 지계가 곧 바라밀이고 바라밀이 곧 지계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섯 가지 바라밀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야바라밀은 다섯 가지 바라밀의 바탕이 되며, 각각의 바라밀은 자신의 위치에 머물면서 동시에 나머지 바라밀을 성취한다. 다시 말해 지계바라밀도 반야바라밀에 의해 실현될 수 있으며, 지계바라밀에 의해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도 원만해진다.

지계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대비심(大悲心)과 흔들리지 않는 용맹심으로 중생을 위해 계(戒)를 지킨다. 그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계를 지키는 목적은 명성이나 열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회 속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피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보살의 지계는 대비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바라밀이 된다. 그리고 이런 보살의 지계에 의지하여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이 원만해진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⑰ 석가모니 당시의 화폐

펀치마크 주화 유통됐을 것

출가 전의 싯다르타 태자의 손바닥에서 금화와 은화가 반짝이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태자였다면 자신의 시종들에게 은전(銀錢)이나 동전(銅錢)을 주면서 장터에 있는 어떤 물건을 부탁했을지 모른다. 만일 이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담아낸다면 손바닥 위의 동전을 어떻게 표현해볼 수 있을까. 현재와 같이 동그란 모양의 동전 양쪽에 그림이 새겨져 있었을까.

불교에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 할 때 그 색(色)을 산스끄리뜨어로 루빠(rūpa)라고 하는데 보통 '물질' 또는 '형상' 정도의 뜻으로 푼다. 이 말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데, 기원전 4세기경 빠니니는 동전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은과 같은 귀금속 쪼가리를 마찬가지로 루빠(rūpa)라고 불렀다. 이 금속 쪼가리에 특정한 '모양' 을 찍어내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루빠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루삐야(rūpya)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즉 '(은과 같은) 금속 쪼가리로 만들어진' , 또는 '모양을 낸 것' 등의 의미가 되겠다. 여기서 오늘날 '돈' 이라는 뜻의 인도말 루삐(rupee)가 탄생한다.

석가모니 당시에 존재했었던 화폐는 대부분 얇은 은판에 특정한 문양을 때려서 만든 주화가 일반적이었다. 인도 내 여러 지역에 따라 주화의 형태와 문양은 다양했지만, 표면의 문양을 때려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거의 제작기법이 동일했다. 문양이 새겨진 펀치를 금속 표면에 대고 때려서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펀치마크(punch-marked)주화 또는 타각(打刻)주화라고 부른다. 주로 은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당시 고대 인도에서는 이렇게 만든 동전을 "까르샤빠나(Kārṣāpaṇa)"라고 불렀다. 모양은 일정하지 않았는데 금속의 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문양을 새긴 후 귀퉁이 등을 잘라내 무게를 잡았다. 따라서 외형은 대부분 불규칙했다. 문양으로는 만(卍)자의 길상문이나 황소나 태양, 또는 기하학적인 패턴 등이 사용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어떤 하나의 문양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문양을 섞어서 한 면에 찍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펀치마크 주화가 고대 인도 사회에서 통용되던 대표적인 주화의 형태인데, 대략 기원전 6세기경에서 기원전 2세기경까지 통용되었다. 따라서 석가모니 당시에는 이러한 형태의 주화가 유통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지만, 지역마다 펀치마크 주화의 형태나 표면의 문양은 꽤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의 샤캬(Shakya)족들이 사용했던 은화는 약간 두꺼운 은판을 일정한 무게가 되도록 불규칙하게 잘라낸 다음, 그 은판 쪼가리 중심에 펀치를 쳐서 문양을 냈다. 네팔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발견되는 펀치마크 주화들은, 은판 가운데에 펀치를 두고 망치로 상당히 세게 내려쳤기 때문에 가운데가 뒤쪽으로 깊게 움푹 파진 형태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마치 물을 담을 수 있는 형태와 같이 가운데가 꽤 깊숙이 들어가 있다. 이 지역의 펀치마크 주화들은 평평한 주화들이 거의 없다. 크기는 대략 가로세로 2센티 내외인데, 가운데에 움푹 들어간 부분의 중심 문양은 오각형의 별모양이 상당히 많다. 오각형 외에 다른 기하학적 문양도 함께 사용되었다. 카필라바스투 인근에서 발견되는 주화들은 대략 이렇게 생긴 은화들이 발견되는데, 석가모니 당시에도 이러한 주화가 통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지역 주화 제작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역시 은(銀)의 무게다. 고대 인도에서는 베다시대부터 일정한 무게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홍두(Abrus precatorius)의 씨앗인데, 밝은 주홍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는 콩이다. 이 씨는 일관성 있는 무게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문명권에서 무게의 단위로 사용해왔다. 산스끄리뜨어로는 락띠까(raktika, 현대어로는 라띠 ratti)라고 불렀던 이 씨의 무게는 대략 0.12g 정도 나가는데 이 씨앗 백 개의 무게가 중요한 중량 단위로 사용되어왔다. 주화 등과 같이 작은 물건의 중량 단위가 되는 '1샤따마나' 가 바로 이 씨앗 백 개의 무게를 말하는 것으로, 거의 11그램에 가깝다.

석가모니 당시 샤카족들도 이 주화의 무게 단위를 사용했는데, 은화들은 대략 64라띠의 무게를 가진 것들이었다. 즉, 대략 7그램 내외의 것이었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